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1 이세상은 요란하나 내맘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것일세

2 이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3 육신의 눈 못 볼때에 신령한 일 참 많으나
저 천성문 보게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4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5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가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꿈에

1 주여 지난 밤 내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될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3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후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기도 담당

11/21(화)	11/22(수)	11/23(목)	11/24(금)	11/25(토)	11/27(월)
박재용 안수집사	박성해 안수집사	김창섭 안수집사	허윤무 안수집사	이 선 안수집사	김기환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성숙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414장 다 함 께

기 도 박성해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이사야 65:7~25 인 도 자

찬 양 오 놀라운 구세주 새벽찬양대

설 교 『절망에서 소망을 기대하는 믿음』 이성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490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이사야 65:17~25>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3년 11월 22일(수)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펼쳐지는 오늘의 일상을 감사로 맞이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쉼 없이 밀려오는 죄악의 물살, 혼탁한 미혹의 물살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내일을 고대하며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정직한 삶, 화평의 삶으로 더욱 가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실의 절망에서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새문안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새문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맡겨진 사명 앞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당회원들과 모든 제직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시고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으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열강들의 이권 다툼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